

전문가
인터뷰

지상파DMB 표준화 분야 이상운 연세대 교수



국제표준 전문가 확보와 인력 양성에 관심을 기울여야

“응용서비스 기술 분야에선 선진국 못지않게 잘하고 있습니다만 원천기술 및 요소기술에서는 선진국들에 뒤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15년 이상 한글자막방송, 재난방송, 교통정보서비스, DMB 등 각종 방송기술 분야 표준화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는 이상운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 산하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 프로젝트그룹(PG) 의장은 우리나라 기술표준화 과정에서 원천기술 확보의 어려움을 숨기지 않았다.

“예를 들어 방송 분야는 전송방식이나 요소기술은 선진국들이 개발한 것을 도입해야만 하는 실정입니다. 이는 모든 것을 빨리빨리 처리해야 하고 기술 연구개발에서도 빠른 성과만을 요구하는 사회 풍토와도 관련이 있어 보입니다. 선진국은 원천기술을 이용한 응용서비스 및 이의 표준화 추진에서는 놀랄 만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이 의장은 특히 정부와 기업에서 필요할 때에만 표준화에 관심을 두는 풍토는 가장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지속적으로) 국제표준화를 위한 전략 수립, 조직 구축 및 정보 제공, 전문가 지도 등에 힘써야 하며, 기업도 이런 기반 위에서 지속적으로 해당 분야 세계시장 확보와 국제표준화를 연계해야 한다. 또한 기업은 전문가의 중요성과 전문가 양성기간을 간과하고 필요할 때만 인력을 투입, 사안이 종료되면 철수시키는 경향이 있는데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국제표준 전문가 확보 및 양성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장은 사실표준이 공식표준보다 힘을 얻고 있는 상황을 언급하며 급변하는 기술개발 속도를 표준 제정이 따라가야 한다고 말했다. 기술개발 속도가 가속화되면서 이를 표준 제정이 못 따라가는 예가 종종 있는 것 같다고 밝힌 이 의장은 “의견수렴 기간 등 표준 제정에 소요되는 기간을 과감하게 단축하고 절차를 간소화하면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이런 과정에서 기술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표준이 제정되거나 관련 지적재산권이 불분명한 상태에 빠지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
집제
1
편제
2
편제
3
편제
4
편제
5
편부
록



- Q | 정부 차원의 표준화 지원은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 A |** IT 강국에 걸맞게 정부 차원의 지원이 잘 된다는 것이 우리 표준화기구의 강점이다. 연구개발 과제와 표준화 활동 지원 프로그램이 있어서 민간의 전문가도 능력과 의지가 있으면 관련 분야 표준화 활동이 가능하다. 하지만 단기간의 국제표준화 위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약점이다. 정부는 어학능력을 갖춘 사람을 대상으로 표준화기구 및 회의절차, 발표와 경청을 포함한 회의 참가 요령, 기고문 작성 등에 관한 교육과정을 마련해야 한다.
- Q | 표준 전문가에게 필요한 자질은 무엇인지, 또 표준 전문가에게 조언을 한다면?**
- A |** IT 분야 표준 전문가는 전문성 등 기본 자질을 반드시 갖추야 외국과 같은 지속적이고도 성과 있는 활동을 할 수 있다. 해당 분야의 기술적 전문성, 자료 분석의 상황 판단력, 국제조직 내의 대인관계 및 친화력, 영어 등의 국제 언어능력을 갖춘 사람만이 표준화 부문에서 성과를 낼 수 있다. 특히 표준 전문가는 개인적으로도 해당 분야 기술 내용, 발전, 국내 및 국제 동향을 수시로 파악하고 타국 전문가와의 유대를 강화하는 경력관리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한다.
- Q | 표준 전문가로 활동하면서 올린 가장 큰 성과는? 그 성과의 산업적, 경제적인 의미는 무엇인가?**
- A |** 10년 이상 방송기술 분야의 한글자막방송, 재난방송, 교통정보서비스, ITS/텔레매틱스 표준화 등 여러 가치를 추진해 왔지만 그중 가장 의미 있는 것은 DMB 표준화다. DMB는 1990년대 말 국내방식 결정 과정에서부터 현재 표준화 마무리 단계까지 참여하고 있다. 처음부터 끝까지 DMB 표준화를 추진하고 있는 사람으로는 사실상 유일하다고 생각한다. DMB 교통 및 여행정보 서비스(TPEG) 기술 역시 비슷한 시기에 제안했다. 얼마 전부터 DMB의 킬러 응용서비스로 각광받는 등 본 궤도에 오르는 것 같아 보람을 느낀다.
- Q | 표준 전문가의 업무와 능력을 구체화하는 것은 표준 전문가 양성정책을 펴는 데 좋은 기준이 될 것이다. 표준 전문가로서 자신의 전문성과 경쟁력을 구체적으로 언급한다면?**
- A |** 방송서비스에 적용할 기술을 개발하다보니 표준화 필요성을 절감해서 전문가로 활동하게 됐다. 방송 분야는 연구개발을 완료, 좋은 성과를 내더라도 표준화를 이루지 못하면 사장되고 만다. 또 기술을 잘 알지 못하면 표준화 수행이 쉽지 않기에 전문 분야 업무와 표준화는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다. 따라서 실무 담당 전문가가 전문성을 기반으로 표준화를 병행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 그러나 기업에서 표준화는 업무 자체로 인정받기보다는 별개의 업무로 치부되는 경향이 있다. 표준화 활동이 본래의 연구개발 업무에 지장을 줄 수도 있다는 시각이다. 본인 역시 같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끈기와 뚝심으로 지속적인 활동을 해왔다.
- 결국 내 전문성은 실무를 기반으로 국가적 상용화를 전제로 하는 방송 및 지능형 교통시스템 분야 기술에 있다고 할 수 있으며, 경쟁력은 이 분야에 대한 끈기와 애착이라고 말할 수 있다. 해당 분야에 대한 끈기, 애착, 뚝심은 모든 표준화 작업 관계자에게 요구되는 것이기도 하다.